

젖소의 물 중독

李 周 默

全北大學校 農科大學 畜產學科

물 中毒(water intoxication)은 소가 渴症이 매우 심할 때 일시에 과도한 量의 물을 마심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특히 소가 심한 運動을 하였거나 外氣溫이 매우 높아져서 體內的 鹽分損失이 심한 경우에 이 中毒症은 더욱 잘 발생한다. 물 中毒症은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뜨거운 여름철에 책임감이 없는 목부들이 젖소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루 종일 물을 주는 것을 잊었을 경우에 젖소가 일시에 다량의 물을 마심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一線의 臨床獸醫師들은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우 보다는 젖소에 물 中毒의 發生頻도가 높은 것은 젖소는 검은 털이 많아서 더위를 더 타게 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아직도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여 日射病의 發病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물 中毒도 젖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實驗的으로는 腦下垂體에 抗利尿作用을 일으키게 함이 없이는 물 中毒을 再現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며 野外에서는 송아지가 물 中毒에 잘 걸리게 된

다고 Hannan은 보고하고 있다.

물 中毒의 경우에는 細胞性水腫이 생겨서 臟器組織細胞는 심히 팽창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腦에 현저하여 腦水腫이 발생하였을 때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즉 筋의 軟弱, 筋震顫, 不安, 運動失調, 強直, 間代性痙攣 昏睡狀態 등과 같은 神經症狀이 나타난다. 또한 물 中毒에서는 赤血球의 溶血 때문에 심한 溶血性貧血이 나타나며 이 溶血 때문에 血尿가 수반되기도 하므로 尿症狀만으로는 피로플라즈마症으로 誤診되기가 쉽다. 이 외에도 물 中毒에서는 體溫이 下降하며 流產症 등이 나타난다. 물 中毒症은 흔한 病은 아니며 渴慾이 심한 소에게 적당한 제한 給水를 하고 이에 앞서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신선한 물을 마음대로 마실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미리 예방할 수가 있다.

중독된 患畜에 대한 治療는 鎮靜劑와 利尿劑를 투여하여야 하며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高張液을 靜脈內에 注射하여야 한다.